



능소화 / *Campsis grandifolia* (Thunb.) K.Schum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능소화속 |
| 과국명 | 능소화과 |

| | |
|------|---|
| 과명 | Bignoni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능소화과 낙엽 활엽 덩굴성 식물로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한 남쪽 지역에서 자란다. 중국에서도 볼 수 있다.</p> <p>분포지역 : 중국; 중부 이남에서 식재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덩굴성.</p> <p>크기 : 길이 10m.</p> <p>꽃색 : 주황색,붉은색</p> <p>개화기 : 7월,9월,8월</p> <p>잎은 마주나기하며 달걀 모양이고 1회 깃모양겹잎이다. 작은 잎은 7~9개가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톱니와 털이 있다.</p> <p>8~9월에 꽃이 핀다. 이 때 꽃은 주홍색이지만 검은 적황색을 띠고 있다. 가지 끝에 있는 원뿔모양꽃차례의 꼭대기에 5~15개가 달린다. 꽃받침열편은 창모양이고 털이 없으며 꽃잎 전체는 깔때기 비슷한 종모양이다. 판통이 꽃받침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큰 편이고, 대체로 고르지 않은 5갈래로 갈라진다. 수술은 4개가 있는데 그중 2개만 길고 2개는 짧다. 암술은 하나이다. 꽃을 능소화라 한다.</p> <p>열매는 삭과고 네모지며 끝이 뭉뚝하다. 가죽 같은 촉감이며 2개로 갈라지고 10월에 익는다.</p> <p>나무껍질은 회갈색이고 세로로 벗겨지며, 가지는 빨판처럼 다른 물체에 잘 달라붙는 뿌리가 발달하였다.</p> <p>해가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보호해야 겨울을 날 수 있다. 수분이 많고 기름지며 진흙이 조금 섞인 보드라운 땅이 적합하다. 바닷가에서도 잘 자라며 대기오염에도 강하다. 껌꽃이 또는 뿌리를 나누어 번식시킨다. 어린 줄기를 잘라서 3월~7월 사이에 껌꽃이 한다.</p> <p>나팔모양의 꽃은 색상이 화려하며 점잖고 기품이 있으며 줄기는 큰키나무나 벽을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.</p> |